

# 검찰, 버티는 전두환 조만간 다시 부른다

## 헬기 기총소사 일부 물증 확보 등 진실 밝혀내기 ‘속도’ ‘회고록 수사’ 세번째 소환 불응 땐 체포영장 발부 관측도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를 모두 거부한 상태이며, 검찰은 수사대상인 ‘헬기기총소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한 만큼 증거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소환 통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사실상 소환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의 이 같은 의지는 이미 가차없는

물증이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추가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과 헬기기총소사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증언 등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다수의 구체적인 진술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현재 광주지검 내부 분위기는 지금까지 수사결과만으로도, 전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전 전 대통령에 세 번째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실제 1995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통보를 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수감한 적이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수사대상인 ‘헬기기총소사’ 부분에 대해서는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회고록 집필도 책임정리자 인민정치 전 비서관이 한 만큼 진술할 사항이 없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

수수색하고 집필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자 명예훼손을 넘어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의미가 큰 수사”라며 “본인(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하지만, 현재 헬기기총소사 등과 관련된 고(高)평가할 만한 일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진실의 퍼즐 완성해 가고 있다. 조만간 직접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소송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고 장준하 선생 아들 불출석한 채 재판

### 해외서 박근혜 비판 광고 혐의

해외에서 박근혜 정부 비판 광고를 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재판이 당사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결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이연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모씨의 재판을 열었지만, 장씨는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번 연기한 이후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여전히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 270

조 2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70조 2항은 피고인이 기소 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은 연기하고, 다음 재판부터 결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미국의 한 일간지 등 4개 매체에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폐지 촉구.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비효율적 중복 감사 우려가 있고 형평성·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조례안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만능기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상습절도

### 순천경찰, 10대 2명 구속

일명 ‘달키’로 불리는 만능기를 이용해 절도를 일삼은 청소년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28일 “순천 등 전국 1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를 턴 10대 청소년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모(17)군 등 2명은 지난 15일 새벽 3시경 순천시 연향동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 잠금장치를 열어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광주·여수·군산·대전·대구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14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박군 등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생활비·유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부수고, 본체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만능기로 해제하는 수법을 썼다.

앞서 27일에는 광주 광산경찰이 만능기로 오토바이를 훔친 10대 청소년 4명과 2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15)군 등 일당 5명은 지난달 24일 밤 10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 한 원룸 앞에 세워진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만능기로 오토바이 키박스를 돌려 손쉽게 시동을 건 것으로 밝혀졌다.

만능기는 인터넷에서 만드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절도 경향이 많은 박군은 자물쇠 구멍만 보고도 만능기가 통하는지 여부를 알았다”며 “만능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층 3층 잠금장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통시장 일대 윗 도박장 개설 둔 쟁건 3명 검거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과 노인들을 상대로 윗놀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불법 도박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폭행한 일당 3명이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도박방조 및 도박 혐의로 조사중이다.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5)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경부터 10월 말까지 광주시 서구 양동 양동시장 주변 천변과 시장 내 3곳에서 윗놀이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했다.

도박 가담자들은 한판당 수십만원의

판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시장상인과 노인을 도박장에 끌어들이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5%를 운영비 명목으로 떼는 수법으로 1600만원을 챙겼다. 김씨 등은 도박장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황모(53)씨를 신고자로 의심해 지난해 10월 말 3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잔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윗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은 도박장 주변에 속칭 ‘문방(문보는 역할)’을 배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기자 young@

## 학원차량 인도 뒤흔

### 여수에서 2명 사상

28일 오후 4시15분께 여수시 안산동 모 병원 앞 편도 2차로 내리막길에서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행인 권모(여·45)씨가 숨지고 이모(여·4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차량은 학원 통원용 승합차량으로 알려졌다며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아파트 경비실서 택배 훔친 20대, 슬리퍼 때문에 ‘덜미’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박스를 훔친 20대 용의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본 경찰에 덜미.

○2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는 지난 1월27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잠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류·화장품 등이

담긴 택배 상자 5개를 훔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았다는 것.

○경찰은 경비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주변 CC-TV에 등장한 유력한 용의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 아파트 주민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붙잡았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김영기자 young@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5698	1	서구 용암2로36, 103동 18층 1809호 [용암동, 주안, 모아아파트] 59.28㎡	아파트	160,000,000 160,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7타경 16615	1	남구봉선로84번길16, 101동8층 802호 [주월동, 주월동이더센터아파트1단지] 84.9476㎡	아파트	291,000,000 291,000,000	
2017타경 17212	1	북구 문흥동 1010-7 103동 3층 303호 49.9㎡	아파트	108,000,000 108,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7타경 17960	1	서구 화운로193번길25, 106동 19층 1901호 [내방동, 내방마을주공아파트] 84.11㎡	아파트	210,000,000 210,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7타경 65792	1	서구 화운로37, 101동 4층 409호 [화정동, 대주아파트] 84.99㎡	아파트	162,000,000 162,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7타경 67163	1	동구 문림길71, 103동 5층 501호 84.7㎡	아파트	189,000,000 189,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8타경631[중복]
2017타경 68081	1	광산구 어들대로647번길43, 101동 11층 1107호 [소촌동, 대화아파트] 59.99㎡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7타경 68548	1	광산구 팔계동 764-4 정만두산1차아파트 14동 3층 306호 59.997㎡	아파트	135,000,000 135,000,000	아파트도이용중
2017타경 15018	1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132-3 157㎡ [국정제지분8분의1]	대	6,155,280 6,155,280	말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및수1회로제한
2017타경 15629	1	담양군 월산면 월광로 349 68.91㎡ 부속건물 번소, 부일리실3.8㎡ [국정제지분8분의1]	대	194,715,000 194,715,000	말괄매각, 제시외 건물및수목포함, 묵책2현황196-1, 2다용도실 61.8㎡
2017타경 66818	1	서구 황동동 564-131 이화빌라 3층 301호 24.28㎡	다세대	36,000,000 36,000,000	다세대주택으로이용중
2017타경 18192	1	남구 양과동 762 1497㎡ [최초회, 최현숙지분각50분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및수1회로제한]	답	4,251,480 4,251,480	인접지외경계불명분각50분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및수1회로제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8192	2	동소 763-2 1658㎡ [최초회, 최현숙지분50분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및수1회로제한]	답	4,708,720 4,708,720	인접지외경계불명해경계측량요
2017타경 18642	1	남구 서문동 1237 567.7㎡ [일방상업지역, 잡초, 잡목등생여있음]	대	845,873,000 845,873,000	
2017타경 19485	1	담양군 대덕면 일석리 686-1 1105㎡	전	52,248,000 52,248,000	일괄매각, 잡도구역저촉,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68265	1	남구 주월동 511-3 3882㎡ [김창후지분4분의1전부, 임목포함, 제시외건물 [축사일부기상상일부경계선제정범위에있음]매각제외]	임야	35,908,500 35,908,500	건축,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및수1회로제한, 2017타경68593[중복]
2017타경 9280	1	서구 매월동 601 333㎡	대	27,091,548,000 27,091,548,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수목포함, 건축물대장외부면적축출기제, 2017타경13470, 2017타경18314[중복], 2017타경16189[중복]
2017타경 18062	1	북구 안산로47-4, 3층 302호 [오치동, 오치동도나아파트] 48.6207㎡	오피스텔	147,000,000 147,000,000	주거용[오피스텔]
2017타경 20096	1	서구지평동1213-4 8층 803호 420.7㎡ [건축물대장상영화관 [전유면적392.2㎡], 휴게음식점 [전유면적28.5㎡]이내현황사우실 [전유면적392.2㎡], 창고 [전유면적28.5㎡], 건축물현황도상803호, 803호창고로나뉘어표기]	근린시설	872,000,000 872,000,000	현황조사당사시면적1633천만㎡이상태
2018타경 60091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용이로379번길25-2, 102동 302호 [산정동, 산정빛어울림아파트] 등록번호:40N48290 차명:아반떼 [AVANTE] 연식:2014 사용연도:경유	자동차	7,000,000 7,000,000	보관장소:광주광 31구상왕길314-16 (주수권리대이내하우스)
2017타경 19270	1	북구 월출동 970-27 1층464.8㎡ 2층62.04㎡ 부속건물 사무소109.2㎡ 제시외 공장 등 153.7㎡, 기계기구목록별조 [제시외건물 및기계기구포함]	공장, 사무소	675,787,160 675,787,160	일괄매각, 건물만매각, 기계기구목록1-15소재물명, 제시외기계기구수출성형기제외
2017타경 66580	1	남구 방림동 107-2 225㎡	도로	101,250,000 101,250,000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로이용중

● 고공인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최고기대수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2. 공유자가 민사판결 제140조제2항의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회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인 이외의 공표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회에서는 우선매수신청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회에 다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청금액으로 본다.
3. 매각기일: 2018. 4. 12. [목] 10: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1. 입찰방식에 비한 경매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등 등록 기재하고 낭독하여 불합격 한계 입찰방식에 따라 입찰하여 부합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공표인과 불합격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득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찰방식의 특징이 검토되면 공표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기대수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차액을 당해 매수보증금에 산입한다.
  4. 최고기대수고인과 최저유망수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명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차액이 총합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1.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대하여 매각결정일에는 매각허가 의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을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2.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에 대한 지급, 변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정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정권등기, 가압류등 말소등기는 등록세와 지참금제출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과 함께 관공서로 신청한다. 또한 주택임대차권보전법을 기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세 및 법원이 면제된다.
  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차, 소유차 또는 대항특약은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8. 주의사항
  1. 매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최선순위의 지당과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목적건지임을 신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건자등최선순위 미충 입찰자일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다.
  2. 매각허가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무인으로 민사판결[상항]과에서 전자문서채널이나 비화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청문은 청문일 후 입찰허가 결정일 이전에 반드시 방문한다.
  3.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해당판결문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할 수 있음이다.
  4. 입찰방식에 대한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불응하거나 신분증도 소멸을 가지고 오지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을 청환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음이다.
9. 매각물건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에 관해 설명이 취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허가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10. 신청에 고지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회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문공고를 한 것으로 무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보관처 비화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12.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매각일 공고 선택]
13. 법원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의무가 없거나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신청의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화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 3. 29.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성